

## 제주 승마장 활성화 방안

심계진\* · 박치완\*\*

### ■ 목차

1. 머리말
2. 제주 승마장 활성화의 필요성
3. 제주 말산업 현황
4. 제주 승마장의 문제점
5. 제주 승마장 활성화 방안
6. 맺음말

### 【국문요약】

중앙정부는 자유무역협정시대에 위기에 처해있는 농가의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위해 말산업을 주목하고 말산업육성법을 시행하였다. 이의 일환으로 예부터 말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해온 제주도를 말산업특구로 지정하고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말산업은 선진국들의 사례에서 볼 때 단순한 1차 산업이 아닌 문화콘텐츠와 결합되어 새로운 문화상품을 창출해 내며 관광, 고용창출 등 연관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 그러므로 말산업을 단순히 산업적 측면에서만 바라보고 인프라 적 확충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적 관점에서의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현재의 경마위주의 국내산업구조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하고자 하는 말산업의 발전을 더디게 하고 있어, 이의 대안으로 다양한 프로

\* 한국의국어대학교

\*\* 한국의국어대학교(교신저자)

논문접수일(2015년 1월 10일), 수정일(2015년 2월 11일), 게재확정일(2015년 2월 12일)

그럼으로 재창조할 수 있는 승마가 중심축으로 전환되어야하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승마의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인 승마장을 중심으로 한 활성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특히 전체의 자연환경과 관광자원을 보유한 제주도는 말문화 형성을 통해 21세기 말산업의 성공사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타 지역으로의 과급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으므로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 승마장의 한계점을 진단하고 문화적인 관점에서 제주도 승마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주제어 : 말산업, 승마장, 제주도 승마장, 승마, 말문화

## 1. 머리말

제주조랑말은 예부터 심술긋은 동물로 악명을 떨쳤다. 구한말 한국을 방문한 서양인들은 조랑말과 관련한 다양한 경험들은 여러 기록에 남겼는데 영국의 한 외교관은 “여행자 기분에 따라 즐거움이나 고통을 주는 근원지”라는 말로 표현하였다.<sup>1)</sup> 조선시대 중앙정부의 중요 진상품으로, 그리고 농업과 주요 운송수단으로 이용되었던 제주조랑말은 산업화를 거치면서 급격하게 개체수가 감소하여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1986년 천연기념물(제347호)로 지정되고 2001년 제주마로 명칭을 통일하여 명명되면서 제주를 대표하는 산업이자 문화아이콘으로 자리 잡고 있다.

현대에 이르러 국내 말산업은 경마중심으로 발전하면서 사행산업이라는 부정적 인식과 함께 승마는 특정계층의 귀족스포츠로 여겨져 일반인들에게 외면 받으며 또 한 번의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경마중심으로 재편된 산업구조는 심각한 수준에 와 있는 산업불균형과, 이에 따라 제기되고 있는 국내 말산업의 문제점 - 도박중독 등의 경마공원의 역기능, 영세한 승마장, 사육농가의 체계적인 관

1) 문화콘텐츠닷컴, <http://www.culturecontent.com>, 검색일자: 2014년 10월 6일.

리 부족, 마육(馬肉)의 홍보부족 등을 야기하며 우리나라 말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이러한 말산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승마 활성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 승마인구는 2008년 2만명에서 2012년 4만5천명으로 4년 사이 약 두 배로 증가하는 등 매년 증가세에 있다. 이는 국민 소득의 증가, 여가시간 확대, 친환경적인 웰빙에 대한 관심, 그리고 체험형 관광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승마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sup>2)</sup>

2014년 중앙정부는 자유무역협정시대를 맞이하면서 위기에 처해있는 농가의 새로운 수익창출을 위한 돌파구로 말산업을 주목하고 말산업육성법<sup>3)</sup>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국내 말산업은 제 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으며, 특히 전통적으로 말산업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해왔던 제주도를 ‘말산업특구’로 지정함으로써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 말산업은 큰 활력을 받고 있으며 말산업 활성화를 위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오고 있다. 박주영(2012)는 승마관광을 통해 말산업을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책 제안을 하였으며, 차재만(2013)은 레저승마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연구<sup>4)</sup>하였다. 또한 제주도의 말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의 승마트레킹코스 개발을 통한 승마의 방향 제시(김범 2013)<sup>5)</sup>와 제

2) 선진국의 경우 소득 2만 달러(일본 '87년)를 기점으로 승마, 요트 등 레포츠산업이 급성장함. 2013년 우리나라 GNI는 2만6천불. 박주영, 「승마관광 활성화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p.3.

3) 2014년 3월 18일 시행된 말산업육성법은 5개년 종합계획을 통해 총 373억원의 재원을 투자하고, 말산업인프라 확충, 말 사육농가 경영개선, 말수요확충과 연관 산업 육성, 규제 완화를 위해 코리아승마페스티벌, 승용마조련센터, 재활승마센터, 전문가양성기관, 말고기소비기반 구축 등 세부 실행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www.mafra.go.kr](http://www.mafra.go.kr), 검색일자: 2014년 10월 6일.

4) 차재만, 「국내의 승마산업 현황에 따른 한국 레저승마 활성화 방안, 순천향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5) 김범, 「승마에 있어서 승마트레킹코스 개발 및 체험 만족도 분석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주도 말산업특구 지정과 관련한 향후 과제(강승진, 정승훈 2014)<sup>6)</sup>와 관련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그러나 많은 연구들에서 말산업의 문제점 지적과 승마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대중과의 가장 접점에서 말문화를 확산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승마장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특히, 말산업의 활성화와 대중레저스포츠로 승마가 자리 잡기 위해 말문화의 확산, 말문화축제의 중요성 등 문화적 측면에서의 접근과 산업 종사자와 지원기관의 이에 대한 인식부족의 문제에 대해서는 간과되어왔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내 말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국내 말산업을 살펴보고, 제주도내 승마장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과 올바른 말문화 정착을 통해 승마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 2. 제주 승마장 활성화의 필요성

기원전 2만3천년전인 구석기 시대부터 음식자원으로, 이동·운반수단으로 그리고 군사용으로 활용되었던 말은 근대를 지나면서 스포츠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고, 이후 말의 생산, 유통, 이용, 서비스, 말을 매개로한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로 발전하며 산업적인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과거 1차 산업에 머물러 있던 말산업은 현대에 이르러 21세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변모하며 고용창출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타 연관 산업과 연계하여 새로운 문화상품을 창출하는 6차 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는 미국이나 일본 등 말산업의 선진국의 사례에서 잘 나타나는데, 말산업 규모가 100조원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말산업 국가인 미국은 말 사육두수 920만

6) 강승진, 정승훈, 「제주도 말산업특구 지정에 따른 향후 과제」, 『JDI 정책이슈브리프』, 188호, 제주발전연구원, 2014.

두, 승마인구는 30만명에 143만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으며, 말산업의 경제기여 효과가 126조원에 달하고 있다. 우리와 비슷한 경마위주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경우도,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28개의 경마장과 964개의 승마장을 보유하고 있고 산업규모는 24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승마 인구 또한 약 7만명에 달하고 있다.<sup>7)</sup>

이들 국가에서는 승마가 국민레저스포츠로 자리 잡았으며, 동시에 승마관광이 새로운 관광트렌드로 부각되고 있다. 이들 국가가 사회·역사적으로 말과 친숙한 환경이라는 점을 제하고라도 한 분야에 편중되기 보다는 고른 발전을 통해 승마가 대중스포츠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콘텐츠와 결합한 승마관광이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승마는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재창조가 가능하고 다양한 관광 상품으로 연계가 가능하여 이를 통한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이 경마에 비해 효율적이다. 이를 통해 볼 때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제주도 역시 승마가 말산업의 중심축으로 전환되어야 할 중요한 시점에 놓여있다. 올레길, 유네스코 세계자연문화유산 등 자연환경을 보유한 제주도는 최근 힐링이 문화코드로 떠오르면서 힐링 관광지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제주도의 국내외 관광객의 급증 또한 이러한 트렌드와도 무관하지 않다.

이런 트렌드를 반영해 볼 때 승마는 제주도의 가장 대표적인 콘텐츠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승마는 다이어트와 운동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자연과 함께 즐기는 친자연적 스포츠이며, 말과의 교감을 통한 힐링 효과까지 뛰어나 전 세계에서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이다. 이를 활용한 다양한 액티비티는 관광 상품으로 개발이 가능하며, 승마교실 등의 지속형 프로그램을 통해 관광객의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어 관광수익 창출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마유 등 말을 활용한 향장품의 미용효과도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어 있어 부가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7) 조세제정연구원, [www.kipf.re.kr](http://www.kipf.re.kr), 검색일자: 2014년 10월 16일.

이와 더불어 그동안 국내에서는 귀족스포츠로 인식되며 도외시 되어왔던 승마가 일반인들의 관심이 증가하며 승마 인구 또한 가파른 상승세에 있다. 정부에서도 승마의 저변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있어 향후 승마인구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sup>8)</sup>

이런 시점에서 제주도의 말산업특구 지정은 제주 말산업에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예부터 말산업의 중심지의 역할을 해온 제주도가 국내 말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함으로서 향후 말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제주도는 차별화된 상품 개발과 인프라의 확대, 승마의 저변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특히 승마관광길 조성, 승마미로 공원 조성, 말 조련 및 승마거점센터 설치, 에코힐링 마로 건설 등 승마를 중심으로 한 체험형콘텐츠의 개발이 대거 계획되고 있다. 이는 말산업의 중심축을 승마를 중심으로 재편하고자 함이며, 말산업이 1차 산업에서 관광레저 콘텐츠로의 전환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노력은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변모하는 1,2차 산업의 성공사례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승마를 기반으로 한 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 도내에 운영되고 있는 가장 기본 인프라인 승마장의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활용한 활성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단순한 상업적 차원에서의 고려가 아닌 문화콘텐츠적인 관점에서의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실정이다.

8) 정부 지원 승마교육 프로그램의 신청자 수도 2010년 8,674명에서 2011년 12,045명으로 약 38.9% 증가하였으며, 주요 포털에 등록된 승마 동호회는 총 566개로 여기에 83,451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주영, 앞의 책, pp.5-7.

### 3. 제주 말산업 현황

#### 1) 제주 말산업의 유래와 발전과정

말은 원산지의 기후, 풍토 등 환경적 요인에 따라 외모나 습성이 다르게 변화하여 전 세계적으로 202개의 품종이 등록되어 있는데, 국내에는 유일하게 제주마만이 현존하여 보존되고 있다. 탐라말, 제주마, 조랑말, 토마 등 여러 명칭으로 불리었던 제주마는 그 기원과 계통에 대한 확실한 정설은 없다. 1276년 고려 충렬왕 3년 중국 원나라에서 160두를 수입하여 수봉산 일대에서 사육되어 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실은 개벽설화에서 망아지와 송아지를 길렀다고 알려져 있어 고려시대 이전부터 제주마가 사육되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sup>9)</sup>

제주마 사육이 시작된 이래 제주마는 농업, 군사용 및 운반수단으로 널리 이용되었으나 산업화에 따른 농기계 보급과 새로운 운송수단의 등장 등으로 말의 가치는 하락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1960년대 이후부터는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하여 1986년에는 사육두수가 1,347두에 불과하며 멸종 위기에까지 처하게 되었다. 제주도에서는 제주마의 보존을 위해 1986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받고, 명칭도 2001년 제주마로 통일하여 혈통을 보존하고 있다.<sup>10)</sup>

현대에 이르러 제주마는 경마, 승마체험 등의 관광콘텐츠, 불용마를 활용한 음식 등 다양한 콘텐츠로 개발되어 활용되며 산업적으로 발달하게 되었다. 그러나 제주도의 말산업 역시 경마중심으로 산업이 발달하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의 발전이 더디게 진행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일례로 말고기 산업을 살펴보면, 제주도를 중심으로 소비되어온 말고기는 말산업육성정책에 힘입어 말고기 산업 역시 양적인 성장세에 있으나 이 역시 경주마중심의 사육으로 인해 활성화에 어

9) 문화콘텐츠닷컴 <http://www.culturecontent.com>, 검색일자: 2014년 10월 6일.

10) 양영근, 「제주마 보존과 제주경마공원의 과제 및 향후 발전 방안」, 『지역개발연구』, 2권, 2007, p.157.

려움을 겪고 있다. 말고기는 2002년 말 도축 두수가 약 200두였던 것이 2006년 이후 약 700두 수준을 유지하며 연간 약 300톤 정도 소비되고 있으며, 제주도의 대표 먹거리로 자리 잡으며 도내 50여 곳의 전문식당이 성행 중에 있다. 그러나 농가에서는 수익성이 낮은 식용의 사육을 기피하고 경주마 중심으로 사육하고 있어 식용 고기 역시 경주마 중 상품성이 없는 불용마가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경마가 제주 말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지배적이며 제주도에 납부되고 있는 경마장 레저세는 도 재정의 17%에 이르고 있어 도재정에 미치는 영향 또한 지대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경마중심의 말산업 구조는 비단 제주도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내 말산업 전반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 2) 제주도 말산업 현황과 문제점

국내 말산업의 규모는 3조1,398억원으로 GDP 대비 0.5%를 차지하고 있는 작지 않은 산업이나 그 현실을 들여다보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말산업은 크게 생산, 경마, 승마, 그리고 관광, 식용 등 말관련업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경마산업의 규모가 2조5,642억5천4백만원으로 전체 산업규모의 81%를 차지하고 있다.<sup>11)</sup> 경마는 규모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며 잠식하는 양상으로 발전해가고 있어 산업의 편중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말 생산 역시 경마산업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국내의 말생산은 1994년 ‘국내산 경주마 생산 확대 10개년 계획’<sup>12)</sup>이 추진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시작되었

11) 「말산업 실태조사」 계기로 산업육성 장기 비전 세워야, 『일간스포츠』, 2013년 6월 7일자 ([http://racing.joins.com/news\\_view.asp?fkey=2&fword=3&page=7&gb=&idx=11742006](http://racing.joins.com/news_view.asp?fkey=2&fword=3&page=7&gb=&idx=11742006), 검색일자: 2014년 10월 13일).

12) 국산마의 생산과 육성을 통해 우수 경주마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1991년 마사회가 추진하여 1994년 농림축산부의 승인을 받아 본격 시행되었다. 「한국경마파트1 진입의 밑거름은 경주마 생산이다」, 『경마문화』, 2010년 6월 27일자, [http://news.krj.co.kr/news\\_synthesis/news\\_synthesis\\_view.phtml?category\\_id=202002&vi\\_ew\\_id=20100001042](http://news.krj.co.kr/news_synthesis/news_synthesis_view.phtml?category_id=202002&vi_ew_id=20100001042) 검색일자: 2014년 10월 13일.

다. 1990년 말 사육 두수는 334호에서 4,937두만이 생산되었던 것이 국내산 경주마 생산 확대 10개년 계획이 시행된 이후 꾸준한 증가를 보이며 2000년에 이르러서는 520호에서 10,597두를 생산하게 되었다. 그러나 2010년부터는 약 3만두 정도로 생산<sup>13)</sup>되며 정체기에 접어들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볼 때 경마중심의 산업구조가 국내 말 산업의 발전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나, 더 이상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의 말 사육두수 역시 천연기념물 지정 이후 소폭 사육 두수가 증가하였다가 국내산 경주마 생산 확대 10개년 계획이 시행된 이후 급증하여 2010년 15,921마리까지 증가하게 되었다. 현재 제주도는 2012년 말 기준으로 1,081호에서 국내 말 사육의 68.5%에 해당하는 20,337두를 사육하고 있으며<sup>14)</sup> 말 산업의 최대 생산지로 한국 말산업의 중심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경주마 생산에만 지나치게 집중된 결과 문제점 또한 노정하고 있다. 물론 경마는 말 산업을 도내 주요 산업으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사행성의 조장과 투자의 편중 등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산업적 측면에서 경마 분야로의 쏠림 현상은 타 분야의 발전을 방해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말산업 성장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마를 제외한 말산업은 그동안 단순한 기능적 차원에서의 생산, 유통, 상업시설로 분류하여 산업적 측면만이 강조되어왔으며, 문화자원으로서의 활용은 간과되어왔다. 제주도는 말과 관련한 자원, 역사, 스토리 등의 많은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상업적인 활용에만 강조되어 발달되다 보니 더 이상의 산업 성장에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13) 농림축산식품부, [www.mafra.go.kr](http://www.mafra.go.kr), 검색일자: 2014년 10월16일.

14) 이현중, 「제주마 불용마의 활용」, 『동물과학논총』, 14호, 1999, p.103. 농림축산식품부, [www.mafra.go.kr](http://www.mafra.go.kr), 검색일자: 2014년 10월16일.

### 3. 제주 승마장의 문제점

국내 승마시설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에 의한 신고체육시설인 “승마장”과 농림축산식품부의 「말산업육성법」에 의해 농어촌 지역에서 말의 위탁관리, 승용말 생산·육성 등 사업과 이용업을 겸하는 시설인 “농어촌형 승마시설”로 나뉜다.

현재 국내 체육시설로 신고된 승마장은 166개소이며, 농어촌형 승마시설은 64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이 중 제주도내 승마시설은 체육시설로 신고된 승마장 35개소, 농어촌형 시설 2개소, 말육성법에 의한 말 이용업 4개소, 일반사업자(촬영업 등) 4개소, 미신고 4개소, 총 51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sup>15)</sup> 제주도의 경우 전국 초지면적(3만 7,030ha)의 46%에 달하는 1만 7,018ha의 목장용 초지를 보유하고 있으나 초지법에서 규정하는 부대시설은 착유실, 건초사 등 사육시설만 해당되고 있어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설치가 어려웠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승마장 및 농어촌형 승마시설을 초지 전용이 가능한 부대시설로 인정하는 내용의 초지법 시행규칙을 개정 중에 있어<sup>16)</sup> 향후 승마시설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말육성법 시행 이후 정부에서는 승마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16년까지 전국의 승마장을 500개까지 확대할 계획에 있다. 이는 대중들이 좀 더 쉽게 승마장을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승마가 국민 레저 스포츠로 자리 잡고, 말산업의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말산업의 발전과 국민레저스포츠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말문화의 확산과 더불어 가장 근본적인 시설인 승마장의 활성화가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인프라 확충을 통한 문제점 해결 외에도 승마장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들 - 인프라, 인력, 소비계층, 문화 등 전반에 걸쳐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의 짚어보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15) 강승진, 정승훈, 앞의 글, p.5.

16) 한형진, 「목장초지에 승마장 허용, 제주도 숙원 풀었다」, 『제주의 소리』, 2014년 8월 14일자 (<http://www.jejusori.net/?mod=news&act=articleView&idxno=150667>, 검색일자: 2014년 10월 18일).

우선, 첫 번째로 비균형적 산업 성장에 따른 승마장의 운영체계 미비를 들 수 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 말 산업이 경마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승마나 인력육성 등 다른 분야와의 균형적인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프라 확충 노력은 진행되고 있으나 승마장 운영을 위한 매뉴얼이나 승마 지도사 등 전문 인력 육성, 운영인력에 대한 교육 등 관련 인력과 세부적인 운영에 대한 지원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두 번째, 열악한 환경과 단순한 프로그램 운영을 꼽을 수 있다. 제주도는 다른 지역과 달리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이며, 오름이나 넓은 목초지, 바닷길 등 천혜의 자연 환경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대다수의 승마장이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제주도 승마장은 관광지에서 말을 타고 짧은 거리를 걸어 보거나 사진을 찍는 형태, 마차를 통해 관광지를 둘러보는 형태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또한, 승마는 말과의 충분한 교감이 필요한 스포츠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승마체험은 지도사의 말 타는 요령 등의 간단한 설명 후 바로 말을 타고 코스를 돌아보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는 낙마사고의 위험성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엄밀히 말해 승마체험이라기 보다는 말에 한번 타본 정도의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일회성 경험을 위한 체험은 낮은 만족도와 낮은 재방문률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승마장에 대한 환경 개선 또한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꼽힌다. 편의시설의 부족과 승마장, 말, 의복 등에서 나는 냄새로 인한 거부감 유발, 그리고 아래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시설 8곳, 미신고 시설 4곳으로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세 번째는 전문 인력의 부족과 더불어 산업종사자 의식의 한계를 꼽을 수 있다. 현재 대다수의 승마장 경영주들은 승마 선수나 교관 출신이거나 말에 대한 열정만을 가지고 시작한 사람들이 많아 경영에 대한 전문성 뿐만 아니라 관광과 서비스에 대한 마인드가 상당히 부족하다.<sup>17)</sup> 승마 지도사의 경우도 위의 표3에서도

[표 3] 제주도내 신고 승마장 현황

승마장	업소수	전체 면적	마장 면적	보험 가입수	지도자배치수			
					계	1급	2급	3급
승마장	35	1,118,814㎡	283,586㎡	27	30	1	1	28

※ 출처: 『2014 전국 등록·신고 체육시설업 현황』, 문화체육관광부, 2014.

나타났듯이 대다수의 승마장에서 3급 지도자가 배치되어 있으며, 지도자가 없는 시설 또한 존재하고 있어 전문 인력의 배치와 이들의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향후 초지법 개정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 개설이 늘어나면 종사자들의 서비스 및 관광 관련 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도사들은 고객을 일대일로 대면하기 때문에 전문성과 함께 서비스교육이 시급한 실정이다.

네 번째, 고비용과 귀족스포츠로의 인식을 들 수 있다. 승마는 아직까지 레저 스포츠로 즐기기에 고비용구조로 되어 있어 일반인들의 이용에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승마장 1회 이용료는 3~5만 원 정도로 일회성 체험으로는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금액이나 여가활동을 위한 스포츠로 즐기기 위해서는 월 회원료 60만 원 정도를 지불해야 한다.<sup>17)</sup> 이는 등산이나 테니스, 볼링 등의 레저스포츠와 비교해 볼 때 상당히 고비용으로 일반인이 즐기기에 경제적 부담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제주도 승마장의 경우 정기회원보다는 관광객의 일회성 체험을 위한 고객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승마의 대중화나 승마장의 경영정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반면에 승마보다 고비용인 골프는 470만의 골프인구와 950만의 잠재 인구를 보유한 대중 레저스포츠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이를 통해 볼 때 승마는 비용보다는 아직까지는 뿌리 깊게 남아 있는 귀족스포츠라는 인식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17) 박주영, 앞의 책, p.123.

18) 위의 책, p.45.

승마의 경우도 최근에는 소셜커머스를 통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 많아지고 있으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승마교육프로그램의 규모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홍보가 많지 않아 여전히 대중들에게는 멀게 인식되어지고 있다.

말산업 특구 지정 후, 늘어난 승마장으로 인해 승마장 간의 경쟁구도는 치열해 질 것이며, 개발 계획 중에 있는 다양한 관광 승마 시설은 향후 관광객의 집중 현상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앞서 언급된 여러 문제점 해결을 위한 노력 없이는 대다수의 영세승마장의 영세성은 더욱 심화될 것은 자명하며, 이는 곧 경영악화와 폐쇄로까지 이어지게 될 것이다.

승마를 중심으로 한 말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 토대인 승마장이 활성화 되어야만 산업 발전의 토대와 국민레저스포츠로서의 정착이라는 두 가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 4. 제주 승마장 활성화 방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승마장의 경영여건은 열악한 실정에 있으며, 말육성법 시행 이후 승마시설은 급속하게 증가세에 있다. 여기에 제주도의 말산업특구 지정에 따른 승마장 확충 계획과 초지법이 개정 후 목장들의 승마시설 설치가 가능해지면 승마시설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자칫하면 과도한 공급과 영세 승마장의 경영여건 악화 등으로 인해 말산업 정책은 큰 난관에 봉착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올바른 승마문화 정착과 수요 창출을 위해서는 승마에 대한 기본 인식의 전환과 함께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1) 생산계층과 소비계층의 승마장을 문화서비스로서의 인식 전환

승마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말문화의 형성이 선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에 앞서 이를 제공하는 생산자 역할을 하는 관련 산업종사자, 이들을 지원하는 기관, 그리고 향유하는 소비계층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승마장은 1차 산업이 아닌 서비스산업인 3차 산업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경영주와 종사자의 서비스 마인드는 부족한 실정으로 이들의 관광 및 서비스 교육을 통한 서비스 마인드 향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제주지역 승마장들과의 연합을 통해 자체적으로 정기적인 종사자 서비스 교육을 진행하거나 관련 부처나 도내에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 신설을 건의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지원기관에서도 승마장 확충이나 전문가 양성기관 확충 등 신규 인프라 확충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승마지도사의 재교육을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이들이 산업의 전문가로서의 프로페셔널리즘을 확보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부처나 마사회 등의 지원기관에서는 그동안 말산업의 발전을 위해 공익홍보, 이벤트, 업계 지원 등 많은 지원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이 영세 사업장을 도와준다거나 대중에 무료 행사를 개최해준다는 식의 마인드를 가져서는 안 됨을 항상 상기해야 할 것이다. 말산업의 주체자로서 승마장이 한 단계 올라서야만 대중이 진정으로 말문화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되고, 이를 통해 비로소 우리나라의 말산업이 선진대열에 올라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원기관은 사업장과 대중이 말산업의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들을 위한 지원이 말산업의 미래에 투자함을 인지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향유하는 소비계층의 인식개선도 필요하다. 승마는 경마와 혼동하여 인식되는 경우가 많아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파급되어 있다. 또한 귀족스 포츠로 인지되어 있어 승마를 하는 기회를 가지는 것조차 거부되고 있다. 이는 지원기관과 생산자 측에서 대국민 인식 개선 캠페인이나, 적극적인 기부 행사, 재능기

부 등을 통해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에서 재활승마나 초중고생 승마 등 다양한 승마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승마가 대중과 가까이에 있는 친숙한 레저스포츠임을 인지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 2) 골프 대중화 사례의 벤치마킹을 통한 방안 모색

승마와 골프는 많은 점에서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다. 앞서 언급되었듯이 골프 역시 승마와 같이 귀족스포츠로 인지되었고 고비용 구조의 스포츠이나 현재 대중화의 길을 가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골프장과 골프연습장 등이 활성화되면서 골프관광, 골프경기 중계 등 관련 산업에 큰 파급효과를 가져다주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승마 역시 국민레저스포츠로서 자리를 잡을 때 승마장 활성화와 산업에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골프의 성공요인을 몇 가지로 요약해 보면, 첫 번째 박세리, 최경주 등 걸출한 해외 스타들을 배출하면서 매스컴을 통해 골프라는 스포츠를 친숙하게 알리며 좋은 이미지를 쌓아갔고, 두 번째는 이를 통해 일명 '박세리 키즈'라는 이름하에 육성된 어린 선수들이 성장하면서 대중화에 발판이 마련되었으며, 세 번째 스트레스가 많은 직장인들에 시야가 트인 초원에서의 스포츠를 통한 힐링 효과를 가져다주었으며, 네 번째 비즈니스인들의 사교클럽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다섯 번째는 494개소나 되는 골프장과 퍼블릭 골프장의 운영과 스크린골프장, 골프연습장 등 관련 인프라의 확산을 통해 주변에서 쉽게 배우고 즐길 수 있다는 점들을 들 수 있다.

제주도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지이며, 자연환경과 타 지역에 비해 많은 인프라 보유하고 있어 힐링의 효과와 함께 보다 쉽게 승마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보유하고 있다. 제주 승마장은 이를 활용하여 대중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 도박이나 중독 등 어두운 이미지를 쇄신하고 대중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TV나 신문, 페이스북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힐링이나 재  
활의 효과 홍보, 자연과 함께 승마를 즐기는 스타들의 노출, 제주도 홍보와 함께  
승마의 지속적인 노출 등 다양한 방법 등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3) 중국관광객의 주 소비층 편입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제주도는 중국인의 방문하고 싶은 지역 1위, 투자 1순위 지역인 주요 목적지로  
꼽히고 있으며, 지난해 제주도를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은 전체 방한 중국인 관광  
객 432만 명의 42%에 해당하는 181만 명이 방문하였다. 중국관광객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큰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sup>19)</sup>, 대부분 부동산 투자와 쇼  
핑 등에 집중되고 있어 실질적인 지역경제 창출에 활용하기 위해 이들의 특성을 반  
영<sup>20)</sup>한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연구원의 ‘중국인 관  
광객의 서비스 구매 의도’를 조사에 따르면 미용, 힐링, 건강체험이 한국 방문 예정  
자와 기 방문자 모두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sup>21)</sup>, 승마는 이들 모두를 만족시  
킬 수 있는 접점에 있는 서비스로 중국 관광객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도내  
가장 큰 관광객인 중국 관광객을 주소비층으로 끌어들이어야 할 것이다.

우선, 가장 선결되어야 할 것이 소통이다. 중국 관광객이 가장 불편해 하는 것이  
중국어 안내서 부족과 언어소통이다. 이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19) 지난해 방한중국인의 한국에서 소비금액은 7조 6,770억원, 이로 인한 생산유발효과 13조3,717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6조 5,425억원, 취업유발효과 24만 798명으로 나타났다. 한국전자부품연  
구원, 「중국인 관광객 증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제언」, 『Keti 산업 경제』, 2014년 8월  
호, p.77.

20) 방한 중국인의 특성을 살펴보면, 2011년 이후 여성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연령별로는 20~30  
대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젊은 여성층의 중국인이 방한 관광시장을 주도할 것  
으로 보인다. 최경은, 「중국인 방한관광 시장의 특성 변화와 제주관광의 과제」, 『제주발전포럼』,  
제41호, 2012, pp.7-8.

21) 중국인 관광객 서비스 구매의도 조사에서 한국방문자의 경우 미용(42.9%), 힐링(41.5%), 피부미  
용(31.1%), 건강체험(28.3%), 방문예정자는 미용(56%), 힐링(56.7%), 피부미용(37.3%), 건강체  
험(32.7%)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전자부품연구원, 위의 글 참조.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가장 원천적인 소스인 중국어 홈페이지나 블로그, SNS서비스를 통해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확대하고, 중국 관광객의 예약제 서비스를 통해 중국어 통역서비스를 행해야 할 것이다.

프로그램도 말을 타고 간단한 코스를 도는 프로그램에만 그치지 말고 말에 대한 다양한 스토리텔링과 함께 제주도의 자연경관을 볼 수 있는 올레길 코스, 바닷가 코스 등의 체험코스와 마지막으로 말 관련 제품의 판매까지 연결되는 맞춤형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도내에 중국인 토지 소유가 증가와 차이나타운인 '바이젠 거리'까지 등장하는 등 도내 체류하는 중국인 또한 증가세에 있어 이들을 위한 고급형 프로그램 운영도 필요하다. 이들 중국인들은 도내 부동산 소유 등으로 인해 장기 체류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중국의 한 자녀 정책으로 육아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가 이어지고 있어 승마장의 고객으로 편입될 경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입 원으로 보장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개선과 함께 VIP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다. 환경면에서 승마복이나 승마장 시설, 탈의실 등을 깔끔하게 운영하는 것은 기본이고, 서비스면에서 일대일 전담 코치제와 통역지원 서비스, 픽업서비스, 그리고 여유 있는 교육시간의 제공이 필요하다. 프로그램 또한 단계별로 세분화되고 내부 코스, 외부 코스, 트레킹 코스 등 난이도 별로 다양한 코스가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지원기관에서도 관광 홈페이지 내 홍보, 가이드맵 및 여행 책자 수록, 팸투어 실시 등의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를 지원해야 할 것이며, 컨설팅 지원을 통해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을 운영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또한 구글 지도상에서 말 관련 콘텐츠와 정보를 전달하고 공유하는 히스토리핀<sup>22)</sup>과 같은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 여겨진다.

22) 구글 기반 지도에 사진, 영상, 음성 등의 콘텐츠를 업로드 및 공유할 수 있는 디지털 아카이브 형식의 서비스, 최아름, 유동환, 「히스토리핀을 활용한 전주한옥마을의 근현대 기억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방안」, 『글로벌문화콘텐츠』, 제17호, 2014, p.237.

#### 4) 승마장내 문화프로그램의 확충

승마뿐만 아니라 말을 활용한 콘텐츠의 제공은 방문객에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과 동시에 승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에 도움을 준다. 표선면에 위치한 조랑말체험공원의 경우, 박물관, 승마체험, 말과 친해지기 프로그램, 말똥을 모티브로 한 쿠키만들기, 몽골의 천막을 본 따 만든 게르캠핑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광객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승마장이 단순히 말을 타는 곳이 아니라 말에 대해 배우고 말과 관련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여 높아진 고객들의 문화적 취향을 충족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이는 향후 승마가 연관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고부가가치의 산업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승마장내 문화시설의 확충은 대규모 자본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영세사업장에게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영세 승마장의 경우, 승마장들과의 연합을 통해 목축이력 재현행사든가 승마지도사들의 시범 경기, 폴로경기 등 공동 이벤트를 구상하여 진행해보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승마장의 자체 노력뿐만 아니라 지원기관에서도 영세 승마장에서의 말 관련 문화행사 운영이나 문화시설 확충을 지원하는 ‘승마장 문화시설 운영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기존 승마장을 업그레이드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향후 초지법 개정을 통해 목장의 농어촌형 승마 교육시설이 증가하게 되면 목장을 활용한 체험형 프로그램도 증가할 것 예상되며 이에 따라 기존 승마장들의 새로운 콘텐츠 개발을 통한 경쟁력 확보는 필수불가결한 상황이다.

#### 5) 말 문화 확산을 위한 말축제의 재정립

승마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말문화를 즐길 수 있는 분위기가 정착이 되어야 하고 이를 선도할 수 있는 대대적인 이벤트가 필요하다. 문화를 즐기고 대내

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축제이다. 축제는 도시의 이미지를 확보하고 관광객 유치 등을 통해 도시에 다양한 부가 이익을 가져다준다. 말산업 역시 말문화 확보를 위해서는 이를 대대적인 홍보를 위한 축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현재의 제주도 내 말 관련 축제는 마사회에서 주최하는 말문화축제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말문화축제는 1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말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고 있어 성공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말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여기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말산업을 아우르는 우리나라의 대표 브랜드로 키워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문화축제를 마사회의 일부 사업 중 하나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말산업을 대표하는 축제이자 제주도 내의 행사로 규모를 확대시키고 행사 조직, 아이덴티티, 스토리텔링의 개발, 프로그램의 재정립 등 행사를 체계화 시켜야 할 것이다. 게임 산업 전시회인 지스타의 사례를 볼 때 산재되어 있는 국내 전시회를 통합하여 하나의 전시회로 브랜드화하고 체계적인 전시 운영을 해오고 있다. 그 결과 10년이 지난 현재 전 세계적으로도 대표적인 게임전시회로 그리고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의 축제로 자리 잡게 되었다. 말문화축제 역시 산재되어 있는 말문화축제를 단일화 하여 하나의 브랜드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말산업의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제주도, 마사회가 주도적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승마협회, 말산업진흥협회, 승마장연합회 등 관련 단체가 참여하여 역량을 결집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축제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낼 수 있는 스토리텔링의 개발과 방문객과 참가자들을 응집시킬 수 있는 메인 프로그램의 운영, 더불어 말문화를 즐길 수 있는 여러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축제가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단시간 내에 이루기보다는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대대적인 홍보와 더불어 많은 투자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5. 맺음말

우리나라 말산업은 경마를 빼고는 남는 것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말의 생산도 경주마 중심으로 사육되고 있으며 승마에서는 퇴역경주마를 활용하고 있고, 말고기도 역시 경주마로 활용되지 못한 불용마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용어조차도 경마 중심으로 쓰이고 있다. 경주마는 경마에서 뛰는 말이며, 퇴역마는 경마에서 은퇴한 말, 불용마는 경주마로 활용되지 못한 말을 뜻한다. 이는 경마 중심의 산업 형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러한 우리의 현실은 말산업을 1차 산업의 핵심 산업으로 그리고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발걸음을 어둡게 하고 있다.

말산업육성법이 시행되고 제주도가 말산업 특구로 지정되면서 산업 발전의 가장 기본적 토대가 되는 국민 레저 스포츠로 저변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다. 말 선진국의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승마는 연관 산업과 결합하여 고부가가치의 상품으로 재창조되어 산업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경마중심의 산업 구조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으며 대안으로 승마 산업의 육성을 중심에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말산업의 중심지로서 그 역할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제주도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말의 최대 생산지, 급증하는 관광객 등 환경적 요인과 수요, 공급의 조건을 모두 갖춘 곳으로 승마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가능한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산업구조가 경마중심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보니 제주도 역시 경마가 도내 말 산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승마장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또한 승마장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승마 관련한 협회들이 대한승마협회, 제주시승마연합회, 대한승마장경영자협회 등 여러 곳으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어 승마장 경영의 어려움을 대변하고 한 목소리를 내는데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또한 정부의 인프라구축, 환경개선 등의 투자 지원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현재의 각자의 생존경쟁을 통한 경영 방식은 대규모 시설에 테마파크 등의 경쟁력을 갖춘 승마장에 밀려 더욱 입지는 좁아지고 있다.

결국 정부의 지원뿐만 아니라 승마장들의 자구적인 노력을 통한 말문화 형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승마장 자체적으로 경영자와 종사자들의 서비스 마인드 개선과 승마장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승마장 간의 경쟁적 구도보다는 공존을 통한 생존방식으로 서로 연합하여 문화행사의 개최, 공동의 홍보 등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목장주들의 지속적인 목소리를 통해 초지법 개정을 이끌어낸 것과 같이 승마장 경영주들 역시 정부에 지속적인 건의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실질적이면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고른 지원을 이끌어내고 대규모 사업장과 영세사업장의 상생문화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도 승마장들과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정 기업이나 기관이 아닌 어려운 승마장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일 것이다.

이밖에 신규 인프라의 확충이나 생산농가의 지원 등 하드웨어적인 지원 뿐만 아니라 현재 존재해 있는 인프라의 개선을 위한 지원과 승마장 홍보나 교육, 이벤트 운영 등 보다 세부적인 소프트웨어의 지원을 통해 승마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산업적인 토대를 탄탄히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문화산업시대에 말산업은 단순히 있는 그대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다양한 문화자원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새로운 콘텐츠로 재창조되어 6차산업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21세기 고부가가치의 말산업으로의 실현은 문화적 관점에서 생산, 유통, 서비스가 통합한 문화콘텐츠로서 역할을 할 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와 관련 사업자의 노력도 수반되어야 하겠지만, 우리나라 말산업의 중심지인 제주도에서의 승마 활성화를 위한 문화적 노력은 승마가 국민레저스포츠로 정착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임과 동시에 산업발전의 밑바탕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승진, 정승훈, 「제주도 말산업특구 지정에 따른 향후 과제」, 『JDI 정책이슈브리프』, 188호, 2014.
- 김범, 「승마에 있어서 승마트레킹코스 개발 및 체험 만족도 분석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박주영, 『승마관광 활성화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 양영근, 「제주마 보존과 제주경마공원의 과제 및 향후 발전 방안」, 『지역개발연구』, 2호, 2007.
- 차재만, 「국내외 승마산업 현황에 따른 한국 레저승마 활성화 방안」, 제주대학교 석사논문, 2013.
- 최경은, 「중국인 방한관광 시장의 특성 변화와 제주관광의 과제」, 『제주발전포럼』, 제 41호, 2012.
- 최아름, 유동환, 「히스토리핀을 활용한 전주한옥마을의 근현대 기억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방안」, 『글로벌문화콘텐츠』, 제 17호, 2014.
- 한국전자부품연구원, 「중국인 관광객 증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제언」, 『Keti 산업 경제』, 2014.
- 한형진, 「목장초지에 승마장 허용, 제주도 숙원 풀었다」, 『제주의 소리』, 2014.

## 【Abstract】

The Strategy for Revitalization of Horse-riding Course  
in Jeju Island

Kyejin Shim(coyote38301@hotmail.com) · Tch-Wan Park(chwpark001@hanmail.net)

Korean Government has noted horse industry to create new sources of revenue of agricultural industry at stake in an era of free-trade pacts and enforced 'Horse Industry Promotion Act'. As a part of this law, it was designated Jeju Island as the 'Horse Industry Special District', which has played roles of center of horse industry a since long time ago and put in effort to forster as new growth engine in next generation. In case of developed countries, Horse industry is not only that of primary industry but changed value-added industry created cultural product in combine with contents and effected related field such as tourism, job creation, etc. Therefore, it is time to seek the ways in cultural view not only to see the industrial aspect to expand infrastructure. But current domestic situation is centered horse-racing industry and cause slow development to became value-added industry. It is urged the needs for changing industrial structure to center horse-riding industry which is possible to be recreated various program. For this, it should be built up the revitalization strategy for horse-riding course, the basic infrastructure of horse back riding. Especially, Jeju island, which has great wealth of tourism assets, is possible to create successful case to lead horse industry in 21st century and that will have ripple effect on the other region. This research diagnose limitation of horse-riding course in Jeju and suggest revitalization strategies from cultural perspective.

Key Words : Horse Industry, Horse-Riding Course, Horse-Riding Course in Jeju, Horse Back Riding, Horse-Riding Culture